

보도시점 2026. 8. 26.(수) 12:00 / 배포 2026. 8. 26.(수) 08:30
< 8. 27.(목) 조간 >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광고 제재

-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듀오정보(주)(이하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대’라고 하거나,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4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듀오의 부당한 광고는 빠르게는 2022년 4월경 이후부터 다양한 매체(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중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최근까지도 유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듀오는 ‘업계 최대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대 보유’ 등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러나 듀오는 자의적인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회원 수 통계를 산출하였을 뿐이고, 이를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었다.

또한,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 등과 같이 광고하였다. 그러나 광고 기간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와 같이 광고하였다. 그러나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하였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였다.

공정위는 듀오의 이와 같은 광고를 거짓·과장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특정 집단 회원 수, 전문 매니저 수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부당한 광고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4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책임자	과 장	이성태 (02-2110-6140)
		담당자	사무관	이승택 (02-2110-6186)



I 행위사실

〈자신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인 것으로 광고한 행위〉

□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과 같이 자신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인 것으로 광고하였다.

* 듀오는 직업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인 회원을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

** 듀오는 출신 대학이 의학계열대학, 서울 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학, 군 사관학교,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등), 인 회원을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

○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옥외광고(버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공정위의 이 사건 심의일 (2026. 7. 16.)까지도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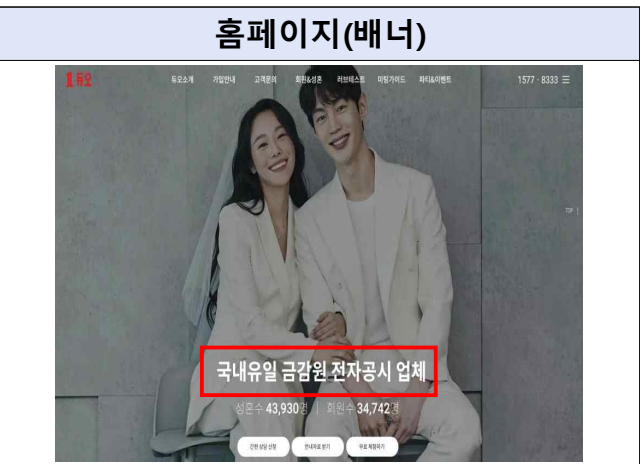
<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예시) >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

- 듀오는 2022. 4. 14.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등과 같이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광고하였다.
- 이러한 광고는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그리고 옥외광고(버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광고(인터넷 기사)는 공정위의 이 사건 심의일 (2026. 7. 16.)까지도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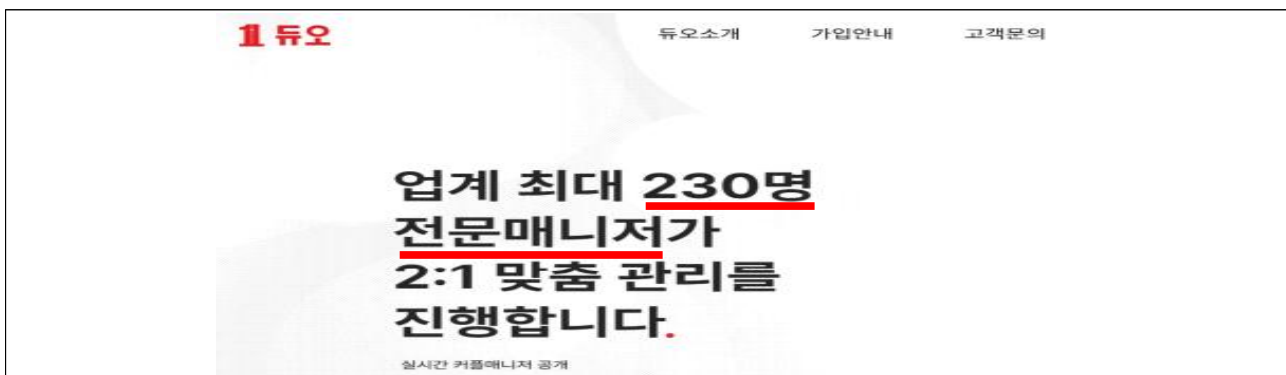
< 외부감사 대상 광고 사진(예시) >

홈페이지(게시글)	홈페이지(배너)
	

<자신의 전문매니저 수를 광고한 행위>

-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2025. 6. 25.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와 같이 자신의 전문매니저 수가 230명인 것으로 광고하였다.

< 전문매니저 수 광고 사진 >


--

〈자신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인 것으로 광고한 행위〉

- 듀오는 자신이 설정한 자의적인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집계하였을 뿐 그것이 업계 최대임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이다.
- 듀오가 광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자신의 매출액과 총회원 수에 불과하며,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른 타 업체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파악하고 자신의 그것과 비교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 특정 집단 회원 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게 한 듀오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

- 2022. 4. 14. 듀오가 아닌 타 결혼정보업체(주)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짓·과장 광고이다.
-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외부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업체의 재무적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게 한 듀오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자신의 전문매니저 수를 광고한 행위〉

- 실제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듀오의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하였으며,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이므로 거짓·과장 광고이다.

- 결혼정보업체의 매니저 수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게 한 듀오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III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 4. (생략)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45백만 원)

IV

의의·향후 계획

-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고객이 실제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공정위는 부당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1

듀오정보(주) 일반현황

□ 듀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기준: 2024년 및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주요업종	자본금	자산총액	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1995. 2. 1.	결혼정보업	945	145,608	2022	38,236	7,230
				2023	40,365	8,679
				2024	45,415	11,115

* 출처: 듀오 제출자료

참고 2

표시광고법 개정 계획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을 정률 2% → 10%, 정액 5억 원 → 50억 원으로 상향

○ (개정 배경) AI 및 디지털 기술의 확대에 의해 부당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반면, 과징금 상한은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 有

○ (진행 경과)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김승원 의원안, '26. 2월)

<참고> 표시광고법 과징금 규정(현행)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개정안: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개정안: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